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지친’ 캔디女

‘글로리아’ 배두나

“진진이를 연기하며 매일 울고, 힘들고, 잠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드라마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벌써 허전하고 진진이에게서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배두나(31)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마음이 참 희한한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커다란 두 눈에 애틋한 감정이 덩그렇게 떠올랐다.

MBC TV 주말극 ‘글로리아’의 주인공 나진진으로 5개월을 산 그를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만났다.

배두나는 ‘글로리아’를 통해 많은 이색 경험을 하는 중이다. 첫 번째는 가수 연기.

“가수라는 설정 때문에 너무 고민했고 세 번이나 출연을 거절했어요. 가창력은 연기력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 못하는 저로 인해 몰입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일단 하게 된 후부터는 ‘올인’했죠. 촬영이 끝나면 밤 12시에도 노래를 배우러 갔어요. 세 분의 선생님에게 지도받았는데 노래 따로, 연기 따로 하려니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미치겠더라. 내가 가창력은 없지만 듣는 귀는 있는데, 내가 노래를 더 잘하면 극에 더 힘을 실어줄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힘들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좀 뻔뻔해졌다. 안 그러면 버티질 못하니 어쩌겠나”라며 웃었다.

하지만 제작진이 도망치는 그를 삼고초려 끝에 붙잡았던 이유는 곧 드러났다. 진진이라는 캐릭터로 완벽 변신한 배두나 앞에 가창력 시비는 이내 쑥 들어갔기 때문이다.

“진진이는 지금껏 제가 맡은 역할 중 최고로 가난한 것 같아요. 불과 10살 때 부모 잃고 언니는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생활전선에 내몰려 20년을 힘들게 살았어요. 진진이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게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진이는 울면 안 되는데, 서글퍼도 서글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인데 배두나는 그런 진진이가 아파서 못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 진진이도, 배두나도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게 됐다”면서 “좁은 집에 복닥거리며 사는 순녀(김영옥)네 집 사람들이 다 진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한마디씩 하는 말에 감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제가 원래 무심한 성격이고 개인주의적인데 진진이를 연기하면서 인간관계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드라마에서 누가 중도하차라도 하면 그게 그렇게 섭섭할 수 없더라고요.”

2000년 MBC ‘엄마야 누나야’ 이후 10년 만에 출연하는 연속극이라는 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50부작이라고 해도 뭐 그게 다르겠나 싶었는데 오산이었어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엄마야 누나야’ 때는 신인 시절이라 지금의 환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영화와 미니시리즈 드라마만 했기 때문에 잘 차려진 밥상을 받는 경우였다면, 지금은 제가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적응됐고, 그 역시 또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가난한 役 처음 진진이 따라 정 많아지고 가수연기 많이 뻔뻔해 졌어요”

‘글로리아’는 진진과 재벌2세 강석의 멜로가 본격화하면서 상승세다. 그간 존재감이 미약했던 서지석은 강석 역을 맡아 ‘까칠한 왕자님’으로 부상했고, 진진과 강석의 달달한 애정신은 여성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정지우 작가님과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에서 작업해 봤기 때문에 달콤한 신이 이어지면 그 후에 곧 그만한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진이와 강석도 달달한 신이 많았지만 그만큼 아픔도 많을 거라 걱정됩니다. 서지석씨가 너무 잘해줘 예뻐죽겠어요. 덕분에 멜로의 설렘과 떨림이 잘 산 것 같아요. 부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진이가 이제는 좀 행복해져야죠.”

일본영화 ‘공기인형’으로 올해 일본에서 여우주연상 3관왕을 차지하고, 올초 출연한 KBS 드라마 ‘공부의 신’의 성공에 이어 ‘글로리아’로 호평을 받은 그는 “부지런히 달려온 것 같다. ‘글로리아’를 끝내고 나면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공기인형’에서 빠져나오는 데 1년이 걸렸는데, ‘글로리아’도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까칠’ 재벌男

‘시크릿 가든’ 현빈

“남자면서 여자…라임이 연기 계산착오 근데 자꾸 라임이 처럼 말하게 되네요”

SBS 주말극 ‘시크릿가든’에서 시니컬한 백만장자 주원 역으로 인기 몰이 중인 현빈이 극중 스턴트우먼인 라임(하지원)과 영혼이 뒤바뀐 연기를 할 때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현빈은 “처음에 시놉시스와 대본 봤을 때 여태껏 안했던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다”며 “내 자신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영혼이 처음 바뀐 6부보다 7부와 8부를 할 때 라임이를 표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6~8부를 모니터해보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는데 계산착오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오스카와 있을 때 라임이의 보이시한 본 모습을 보여드리면 또 다른 남자가 될 것 같아서 실제 라임이보다 여성스럽고 소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계산착오였어요.”

그는 “9부때 다시 주원이로 돌아오니까 너무 편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겠지만 혹시 라임이를 표현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간 착오를 보완해서 좀 더 라임이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크릿가든’에서 현빈이 연기하는 백화점 사장 주원은 외모, 능력, 배경 등 모든 것을 갖췄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인물이다. 그러다 터프한 스턴트우먼 라임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제주도에서 라임과 술을 나눠 마신 뒤 영혼까지 뒤바뀌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랑에 빠져든다.

“제가 극중에서 말할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데 지원씨가 그걸 잡아내셨더라고요. 지원씨가 주원이의 대사를 하면서 기분 나쁜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아 나를 몰래몰래 많이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원래대로 영혼이 돌아오는 장면을 찍는데도 여전히 영혼이 뒤바뀐 상태의 연기를 두 배우가 하고 있던 것.

“상대방 말투와 행동을 연기 하다보니까 영혼이 돌아왔는 데도 라임이의 말투로 주원이가 대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라임이도 주원이 대사 톤으로 연기를 해서 NG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안 좋은 현상이더라고요. 다시 주원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스타로 발돋움한 현빈은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렇다할 히트작을 내지 못하다 ‘시크릿가든’으로 다시 전성기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탁구’ 아역 오재무 ‘사랑을 믿어요’ 출연

올해 최고 인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김탁구의 아역을 연기하며 사랑받은 오재무(12)가 KBS 2TV 새 주말극 ‘사랑을 믿어요’에 출연한다.

오재무는 ‘사랑을 믿어요’에서 권해효-문정희 부부의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역을 맡아 천진난만하고 씩씩했던 김탁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6일 “학교생활을 하면서 연기를 하자니 어려운 점도 많지만 연기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며 “어린 탁구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좀 더 다양한 모습을 시청자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을 믿어요’는 ‘결혼해주세요’ 후속으로 내년 1월1일 첫선을 보인다.